

사용의미의 특성과 그 조사 및 언어실천적적용

박길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언어학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이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언어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전집》 제32권 360페이지)

우리의 언어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면 언어학부문에 여러가지 연구방법을 받아들이고 각이한 각도에서 언어문제를 연구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기서는 사용의미의 특성과 사용의미에 대한 조사방법, 언어생활에서의 그 적용문제를 기본으로 논의한다.

어휘의 의미에는 사전의미와 함께 사용의미도 있다.

사전의미는 사전의 올림말에 올라있고 뜻풀이되어있는 의미이다. 다시말하여 그 단어에 고착되어있는 의미,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일반화된 의미이다.

사용의미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서 본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의미론분야 특히 어휘의미론분야에서는 주로 일반화되고 공고화된 사전의미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한 일반론의 관점에서 연구를 심화시켜왔다.

오늘날 의미연구분야에서는 사전의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용의미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는것을 의미연구의 주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언어생활에서 실지로 쓰이는 사용의미는 일반화된 의미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의미인것으로 하여 사람마다 각이할수 있다.

례를 들어 단어 《몇》은 《[대] I (의문문에 쓰이어) ① 수효가 얼마인가를 물을 때 쓰는 말./ 가족이 모두 몇이요? ② 몇살인가를 물을 때 쓰이는 말./ 올해에 몇이나 되었소? II(자세히 모르거나 꼭 집어댈 필요가 없는 경우에) 많지 못한 약간의 수를 이르는 말.// ~밤.》(《조선말대사전(증보판)1》 사회과학출판사 1 616페이지)이라는 사전의미를 가지고있지만 《꼬마(아이), 거기에 있는 못 몇개 좀 달라.》라고 말하였을 때 여기서 사용된 단어 《몇》의 사용의미는 일반화된 사전의미와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이 말을 들은 아이가 3개의 못을 가져오는 경우 못을 요구한 사람이 대뜸 《야, 이렇게 3개만 가져오면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야!》하고 대뜸 《성》을 내는 현상을 통해서 알수 있다. 이 실패는 못을 요구한 어른과 못을 가져온 아이가 생각하는 《몇》의 사용의미가 서로 다르다는것을 보여준다. 못을 요구한 어른은 《몇》의 사용의미를 3이 넘는것으로, 못을 가져온 아이는 3정도의것으로 생각하였다는것이다.

이렇게 사용의미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각이한것으로서 어느것이 꼭 맞는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실지 언어생활에 쓰이는 산 의미이다.

사용의미는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사용의미는 우선 구체적이다.

사용의미는 천태만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과정을 통하여 아주 구체화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례를 들어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주대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왜 그렇게 떨떨해졌나?》라는 세개의 문장속에서 명사 《사람》은 사전의미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 자기의 사전의미와 함께 각이한 의미들을 더 가지고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첫째 문장에서 명사 《사람》이 일반화된 의미로서 사용되었다면 두번째 문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별화되었으며 셋째 문장에서는 대화에서 말을 듣는 구체적인 개별적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용의미는 또한 매 단어마다 그 형성정도가 동일하지 않다.

사용의미가 매 단어마다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하는것은 조선어의 매 단어들에 대한 사용의미의 조사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초보적인 조사에 의하면 사용의미는 단어마다 형성정도가 동일한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례를 들어 단어 《학교》의 사용의미를 조사해본데 의하면 사전의미와 똑같이 나타났다. 단어 《학교》의 사전의미는 《[명]①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정된 체계와 과정안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기관. // ~건설. ~의 교구비품. ~관리. ② <사람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되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조직생활은 혁명적교양의 ~. ③ <사람들을 교양하는 장소, 마당>을 비겨 이르는 말. / 전국도처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이 꾸려져있는 우리 나라는 온 나라가 말그대로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되고있다. ④ <간부를 키워내는 기지>를 비겨 이르는 말.》(《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사회과학출판사 590페이지)로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사전의미의 《학교》가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는 그대로 사용의미로 나타난다. 극히 일부 경우에 일정한 환경에서의 대화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학교가 있어?》라고 표현할 때의 단어 《학교》의 사용의미는 《학력 또는 학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어 《아이》인 경우에는 사전의미가 《[명] ① 어른이 되지 못한 나이가 어린 사람. // 어린 ~. ~와 어른.=아동 ② <낳은 자식>을 이르는 말. // 돌 지난 ~. /아이가 두셋 있다. ③ <지적수준이 어린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사회과학출판사 1 219페이지)로 한정되어있는 반면에 사용의미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으로 나타난다. 즉 단어 《아이》의 사용의미를 조사한데 의하면 조사대상에 따라 《4살, 6살, 10살》로 나타났다는가 하면 《15살》로도 나타났다. 심지어 어른들을 가리키면서 단어 《아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언어생활에서 경계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사용의미는 매 단어마다 그 형성정도가 동일하지 않다.

사용의미는 또한 립시적이다.

사용의미는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만 형성되는 의미로서 립시적인 특성을 가진다.

례를 들어 단어 《땅크》가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는 사용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의미는 《철수동무는 아무때 보아도 정말 땅크야!》라는 문장으로 사용되

는 경우에 형성되며 이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속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용의미는 없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즉 《인민군장병들은 땅크를 기운차게 몰아 적진을 단숨에 점령하였다.》라는 문장속에서 본다면 이때 단어 《땅크》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것이 아니라 정말 《땅크》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사용의미는 일정한 사용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립시적인 특성을 가진다.

사용의미는 또한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사전의미로 올릴수 있다.

사용의미는 한두사람이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고착되고 누구나가 다 문맥밖에서 또는 언어환경밖에서 인식하는 의미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의미로 올릴수 있다.

례를 들어 단어 《꽃봉오리》는 처음에 《꽃의 망울》을 의미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어린 세대를 비겨 이르는 말》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리해하고 사용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명사 《꽃봉오리》의 사전적의미가 보충되었다.

사용의미에 대한 조사는 방대한 자료작업을 전제로 한다.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의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 리상적인 결과를 얻을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해당 언어의 사용인구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정한 대상만을 조사해나간다면 조사결과가 어느 한 공통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조사대상의 한계를 여기에 정하여도 만족한 대답을 얻을수 있다.

단어의 사용의미를 조사하는 고정된 형식과 방법은 아직 따로 없다.

량적개념과 결부된 단어의 사용의미를 조사하는데서 수량을 나타내는 대상단어를 선정하고 학교나 유치원, 공장이나 농촌지역의 사람들을 선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서면이나 직접대화, 콤퓨터망에 의한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분석종합을 할수 있다.

례를 들어 명사 《대략》의 사전의미는 부사로 쓰는 경우 《대체로, 개략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의미는 말과 글에서 기준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언어생활의 매 계기에 얼마의 값으로 쓰이는가 할 때에는 그 값에 대한 대답을 줄수 없다.

가령 《대략 10Kg》이라는 단어결합을 놓고 사전의미대로 표현한다면 《대체로 10Kg》, 《개략적으로 10Kg》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명사를 다른 단어와 결합시켜놓고 그때 형성되는 천태만상의 사용의미를 조사분석하면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수값들가운데서 어떤 일정한 수값을 선택할수 있다.

이 표현의 사용의미를 알려면 사용자나 일정한 집단이 이 표현을 어떻게 쓰고있는가에 대한 정량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조사를 진행하여본다면 해당 단어의 사용의미의 정형을 파악할수 있다.

사용의미에 대한 조사는 무엇보다먼저 해당 단어의 사용의미의 한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사용의미의 한계를 조사한 정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단어 《대략》의 사용의미에 대하여 언어학전공과의 학생들과 비전공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이 단어가 홀로 쓰이는 경우와 다른 단어와 어울려 함께 쓰이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략 10t〉, 〈대략 10h〉, 〈대략 30살〉, 〈대략 100m〉》라고 할 때 그 수량적한계를 얻

마의 값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서면으로 혹은 컴퓨터 망에서 통보문으로 받아 분석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직접대화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의 자료는 《어문학론문집 김일성종합대학 특집》(2014년 2월 14일 연변교육출판사)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면서 인용한것이며 분석은 필자의것이다.

① 무게 《대략 10t》(비전공과 하급학년학생 19명)

t	9-10	9-11	8-12	9.5-10	8.5-11	8-13
명	2	10	3	1	2	1
%	10.5	52.6	15.8	5.3	10.5	5.3

표에서 보면 19명의 학생들가운데서 18명이 《대략 10t》의 의미를 8t과 12t사이로, 오직 1명만이 8t과 13t사이로 생각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중에서도 $(10 \pm 1)t$ 으로 리해하는 학생이 68.4%로, $(10 \pm 2)t$ 으로 리해하는 학생은 94.7%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대략 10t》의 표현에서 단어 《대략》의 사용의미의 한계는 8t과 12t사이에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② 시간 《대략 10h》(전공학과 상급학년학생 22명)

시 ± 분	10h ± 30min	10h ± 10min	10h ± 15min	10h ± 20min	10h ± 5min
명	15	2	1	3	1
%	68.18	9.09	4.54	13.63	4.54

표에서 보면 《대략 10h》에서 단어 《대략》의 한계는 $\pm 30min$ 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30분이상으로 그 한계를 이야기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③ 나이 《대략 30살》(전공학과 하급학년학생 20명)

살(나이)	29-30	29-31	28-32	28-30	27-31	27-32	...
명	3	2	4	3	1	1	...
%	15	10	20	15	5	5	...

표를 보면 28살부터 32살사이를 지정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그밖에 28살부터 30살, 29살부터 30살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29살부터 31살이 그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대략 30살》의 사용의미가 27살부터 32살사이로 보는것이 100%라는것을 알수 있다.

④ 길이 《대략 100m》(비전공학과 하급학년학생 20명)

m(길이)	90-110	95-105	96-100	97-107	98-105
명	10	4	3	2	1
%	50	20	15	10	5

표에서 《대략 100m》의 《대략》의 사용의미를 보면 결국 90m부터 110m사이를 지적하는 학생들이 100%라는것을 알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 범위내에서 《대략》의 길이

의미를 리해하고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해당 단어의 사용의미가 많은 차이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반화의 가능성도 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사용의미에 대한 조사에는 다음으로 해당 단어의 사용의미의 구체적인 값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해당 언어의 적지 않은 단어들의 사용의미가 한계를 가지는것만은 사실이지만 주동적으로 구체적인 값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의미를 조사할수 있다.

사용의미의 구체적인 값을 조사한 정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의 대상으로는 조선에 와서 류학을 하고있는 외국인들과 문학대학 언어학과학생들이며 구체적인 사용값을 제시하여야 할 단어들로는 《따뜻하다, 덥다, 무덥다, 춥다, 으스스하다, 쌀쌀하다, 아이, 애기, 소년, 소녀, 청년, 중년, 장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로인, 늙은이》를 선정하였다.

조사의 일부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	애기	소년	소녀	덥다	춥다
류학생1	3	1	6	6	33	20
류학생2	5	1	16	16	30	-20
류학생3	4	1	17	16	30	-20
류학생4	6	1	18	16	34	-10
...

	아이	애기	소년	소녀	덥다	춥다
전공과학생1	4	1	12	11	21	10
전공과학생2	10	1	8	7	25	-5
전공과학생3	6	2	10	7	28	0
전공과학생4	7	3	9	9	25	-10
...

표들에서 보듯이 여러 단어들에 대한 사용의미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있다.

어떤 류학생은 단어 《춥다》의 사용의미를 령상 20℃를 지적하였다. 이 류학생은 웬남에서 온 학생으로서 적어도 20℃만 되어도 춥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반면에 중국에서 온 류학생들은 령하 20℃정도를 춥다고 생각하였다.

조선에서 태어나서 생활하여온 조선학생들의 경우에는 령하 10℃정도로부터 10℃의 사이에서 춥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물론 우의 수값자료들은 절대적인 진리성을 가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사의 대상이 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적어도 로동자, 농민, 지식인, 아이, 어른, 남자, 여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보다 객관적인 수값을 얻을수 있다.

그리하여 다음단계에서 평양시와 평안북도 삭주군의 학생들과 사무원, 노동자, 농민 등 그리고 남녀별에 따라 7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어 《아이》의 사용의미를 75명 중 4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2명의 사람들이 2살로, 11명의 사람들이 5살로, 8명의 사람들이 7살로, 6명이 6살로, 4명이 8살 또는 3살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4살, 10살, 12살, 15살, 17살로 보았다.

이로부터 단어 《아이》의 사용의미를 정량적인 값으로 나타내면 5살부터 7살사이가 기본적인 값으로, 그 값의 범위는 대체로 3살부터 8살사이이고 그 평균값은 6.3살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일부 단어들의 사용의미를 정량적인 수값으로 따져보고 그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단어 《덥다》의 사용의미의 평균값은 23.6℃로, 단어 《춥다》는 령하 3.2℃로, 단어 《애기》는 1.7살로, 단어 《소년》은 9.6살로, 단어 《소녀》는 8.8살로 집계되었다.

자료들을 통하여 해당 단어의 사용의미는 매 사람별로 차이가 있다는것과 여러 사람들이 지정한 내용을 통계학적으로 평균을 내어보면 비록 천태만상의 사용의미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값을 추출해낼수 있었다.

사용의미에 대한 조사에는 다음으로 일정한 문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사용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여 사용의미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례를 들어 《철수동무, 넌 교실에 있으라.》라는 문장과 《철수동무, 넌 교실에 없으라.》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이런 류형의 문장을 사용하여본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밑줄을 그으라고 하였을 때 《철수동무, 넌 교실에 있으라.》라는 문장은 거의 매일과 같이 사용하는 문장이라고 밑줄을 그었을뿐아니라 《철수동무, 넌 교실에 없으라.》와 같이 비정상적인 문장을 사용해본 경우가 있었다고 해답서를 제출한 학생도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단어 《없다》의 경우 규범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인정을 받고있는데 언어사용의 현실에서는 개별적인 사람들속에서 동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사용의미에 대한 조사에는 코퍼스자료를 리용하여 사용의미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례를 들어 단어 《어른》의 사용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코퍼스자료를 검색한데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부위원장은 중구난방으로 웨치는 목소리에 어지간히 찢리어 슬며시 자리에 앉고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금시 탁 갈린다.

《어른은 말끝마다 농민들의 생활이 어찌구저찌구 하는데 그래,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어쨌다는거요? 국장은 왜정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주집 머슴을 살면서 하루에 피죽 한끼도 제대로 못 먹었수다... 그렇게두 못살아서 내 새끼 셋은 굶겨 죽었수다!》

어머니의 말이 사람들의 폐부를 날카롭게 찌른다.

어머니를 한없이 미덥게 바라보는 정순이와 옥성이, 마을사람들.
창숙의 두눈에 눈물이 가랑거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린다.

이 실례는 영화문학 《이 세상 끝까지》에서 나오는 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어른》은 사전의미로 쓰이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문맥상에서 따져보면 원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단어 《어른》의 사전의미에서는 주로 《성년나이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 웃사람, 혼례를 한 사람》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영화문학 《이 세상 끝까지》에서 영화의 주인공어머니가 도농산국장을 보고 《어른》이라고 부르는것은 그 사람의 직위가 높기때문인데도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앞에서는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우리 당의 축산정책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 종파놈에 대한 적의의 감정이 강하게 깔려있기때문이다. 즉 사전의미에 없는 질책 혹은 야유의 사용의미가 기본으로 사용되었다.

코퍼스를 통한 이러한 조사방법을 적용하는것은 사전의미와 함께 사용의미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사용의미에 대한 조사연구는 언어실천에 활용할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각종의 언어사전들에서 사용의미를 반영하여주면 사전의 리용가치를 보다 높일수 있게 해준다. 물론 사전들에는 해당 단어의 가장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의미를 뜻풀이하여주는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언어사용과정에 천변만화하는 단어의 사용의미를 다는 반영하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화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것은 오늘날 언어사전분야의 발전방향으로 보아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언어사전들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여왔다.

례를 들어 명사 《한낮》의 뜻풀이를 하면서 《낮의 한가운데 곧 열두시를 앞뒤로 한 때》라고 명사 《한낮》이 가지는 수값을 반영하여주었다. 이러한 수값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주는것은 사람들이 사전의 의미를 정확히 리해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다음으로 모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다.

사용의미를 언어교육에 반영하는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모국어습득과 언어생활수준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할수 있다. 또한 비록 성인들이라고 하여도 언어생활에서 일정한 지장을 받는 현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사용의미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용의미를 통계적방법에 기초하여 설정된 수값으로 제시하여주고 그에 기초하여 모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을 진행한다면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보다 정확하게 진행되고 언어교제과정에 《성》을 내는 일종의 《부담》현상은 없어질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에도 활용할수 있다.

외국인들이 조선어를 배울 때 많은 경우 자기들의 언어에 의거하게 된다. 그러한 현상은 외국인들의 사용의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단어 《애기, 소년》에 대한 중국류학생들과 조선학생들의 사용의미에 대하여 비교를 해

보면 《애기》의 경우 중국류학생들은 1.2살이고 조선학생들은 1.7살로서 조선학생들이 더 큰 나이를 지적하였고 《소년》의 경우 조선학생들의 9.6살에 비하여 중국류학생들이 14살이 넘는 나이를 지적하였다.

이 비교자료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용의미와 중국류학생들이 생각하는 사용의미가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진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조선어교육을 하면서 해당 단어의 사용의미를 설명하여준다면 외국어로서의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의미를 습득시키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자연환경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는 나라에서 온 류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웰남에서 조선에 류학을 온 학생인 경우에는 단어 《덥다》의 사용의미를 33℃로, 단어 《춥다》의 사용의미를 20℃로 지적한 경우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단어 《춥다》의 사용의미는 20℃로서 조선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였다. 오히려 20℃라면 덥다고 생각할 수값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를 고려하여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을 실정에 맞게 진행할수 있다.

우리들은 언어연구에 여러가지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것을 언어실천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더 잘 풀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사용의미, 조사, 정량